

SNS와 비전형적 정치 (Unconventional politics), 그리고 ‘다시 일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선거와 투표 및 정당과 같은 통상적인 방식과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매우 다른 정치참여 방식이다. 후자가 법률과 제도에 의해 공식화되고 합법적 테두리에서 집단적 의견을 공론화 하는 과정이라면 전자는 그러한 공적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집단적 의견을 동원 가능한 자원을 통해 공론화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Diani, 1992). 그렇다고 해서 사회운동이 법적 영역의 밖에 존재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적 차원에서 사회운동은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고 진작되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으로 더 높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인 동시에 공식적 정치의 외곽에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반 시민에게 주어진 소수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단들 중 하나이다. 다만 선거, 투표, 및 정당 정치는 ‘제도화된 정치적 과정’으로 참여의 방식과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주요 정치 세력 (정당, 관료, 경찰 등) 간의 사전협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최장집, 2002). 이러한 제도화된 정치 참여는 정치적 행위의 결과가 곧 바로 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제

도적 장치들은 참여자의 조건/ 표현 방식과 내용/ 참여 지역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더군다나 민주적 정당성이 민의에 의해 부정되며 국가 기구와 제도에 의해 유지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Sidney Tarrow (1988)는 이런 측면에서 한 사회의 거시적 정치적 과정은 정형화된 정치와 더불어 사회운동과 같은 비전형적 정치 (Unconventional politics)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장기적인 사회발전 과정을 견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사회운동이라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사회가 규정한 제도화된 정치 과정에 대한 ‘대안적’ 형태로 자유주의적 서구 유럽의 정치적 환경에서도 정착된 비제도화된 ‘정당한’ (Legitimate) 정치활동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확산과 발전은 오히려 사회운동과 같은 비정형화된 정치참여를 오히려 정형화된 정치 참여보다 더욱 안정되고 일상화된 생활적 정치 참여를 더욱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집단적 정치 참여의 다양한 실험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Pew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Pew, 2012).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가 지난 2008년에 비해 13% 증가하였다고 발표하고 성인인구 중 17%는 정치

적 이슈를 소셜미디어에 직접 링크를 걸어 토론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12%는 그들의 ‘친구’를 통해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와 관계맺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SNS를 통한 정치 참여 확대의 경향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KISDI, 2010).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의 증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주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상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스텔 (Castells, 1997)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형화된 정치구조에서 배제되어 있던 일반인들의 정치화 과정이 오늘날 네트워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규정하고 지역과 계층에서 소외된 집단이 21세기에 새로운 ‘저항적 정체성’과 ‘프로젝트 정체성’을 형성하며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SNS 플랫폼의 지구적 확산은 비정형화된 정치적 공간으로 ‘네트워크 공론장 (Networked public sphere)’ (Papacharissi, 2011)을 형성하게 하며 기존의 지식인, 전문가, 그리고 언론에 의해 조직화되는 지배적 공론장을 대신하여 아래로부터의 정치과정을 정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한 비정형화된 정치의 정형화 과정은 산업화 시대의 비정형적 정치적 참여인 ‘사회운동’이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시대의 비정형화된 정치는 동원 가능한 물리적인 자원을 갖춘 조직화된 시민·노동 등 사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된 이슈와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갖춘 시민 또는 잠재적으로 의식화된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거리와 의회 또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적 행동을 통해 실현되는 경향을 지녔다. 이에 반해 네트워크 사회에서 비정형화된 정치는 중심적 조직의 여부에 의존되지 않으며 자발적이고 다양한 수준으로 의식화된 분산된 개인들이 네트워크 미디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된 개인’이라는 독특한 군집이 상징적 표현과 조직화 과정을 통해 정치적 결사 행위를 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 사회의 비정형화된 정치는 일상에서, 분산적 네트워크의 형태와 소통 방식 구조에 기반하여 상징적 참여에 의해 조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전달/ 행동유발/ 네트워크링과 같은 집단적 행동 레퍼토리 (Collective action repertoire) (Laer & Aelst, 2010)들은 산업 사회에서 사회운동조직 (SMO: Social movement organization)에 의해 수직적이고 하방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데 비해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행동 레퍼토리들이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이용자들에 의해 상향적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형화된 정치의 다양한 집단적 행위 레퍼토리들은 여전히 정형화된 정치 구조를 규정하는 전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의해 매우 강력히 제한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이용 가능한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SNS 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던 ‘아랍의 봄 (Arab spring)’은 미국, 소련, 유럽 등 강력한 국제 권력 관계에 의해 이 지역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비난, 중국 또는 북한과 같은 통제된 국가뿐만 아

나라 미국과 영국과 같은 언론과 정보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일상화된 네트워크 미디어에 대한 통제와 감시, 그리고 정보의 검색과 이용 환경을 결정하는 정보 ‘알고리즘’은 정보 이용자가 아닌 정보 서비스 제공 기업과 조직의 사적 이해를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코드화된다. 이러한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기술적 조건들은 네트워크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의식, 상상력을 억제하며 이 새로운 비정형적 정치과정을 또다시 소외시키며 선거, 투표, 정당 정치와 같은 기존의 정형화된 정치 과정 (Conventional politics)를 강화시켜 주는 주변부 역할만을 담당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SNS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운동의 참여자들에 대한 연구들은 ‘디지털 사회운동’은 정형화된 정치가 만들어 내고 강화시키는 구조들에 의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제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SNS를 통한 사회운동은 정부 감시의 두려움에 의해, 미국은 노동 환경의 악화로 인한 여유 시간의 감소, 그리고 남미지역은 인터넷 접속의 제한으로 네트워크 공론장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힘들어 지고 있다 (Harp · Bachmann · Guo,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사회운동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SNS 사회운동의 참여자는 지역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인접 지역이 아닌 서구 선진국 지식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SNS 사회운동이 지역의 고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구조적 문제들에 의해 정형화된 정치의 하부 구조로 포섭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채영길, 2013). 지난 1980년대부터 2010

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신뢰’와 같은 사회 통합적 가치와 관련된 부정적 경향과 연결시킬 경우 이러한 비정형적 정치 참여 가능성의 제약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지 밝은 전망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World Value Surveys (2010)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지닌 국가들에 비해서 국가, 의회, 경찰, 그리고 언론과 같은 정형적 정치 과정의 주요 주체들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 (Jung · Sung, 2012). 정형화된 정치 주체에 대한 이와 같은 불신은 자연스레 대안적 네트워크 공론장을 통한 비정형화된 정치적 행동의 증가를 가져다 줄 수 밖에 없으며 전체 사회의 정치 사회 발전의 변증법적 발전의 전망에 있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구조의 견고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문화적 장치들에 의해 비정형적 정치 과정마저 제약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대안적 발전을 기획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최근 국가기구가 SNS 공론장에 불법적으로 조직적인 정치 개입을 통해 기존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포털 업체는 언론 산업을 기술적으로 배제하며 인터넷 이용자를 정보의 소비자로 만들고 있고 일간베스트 (속칭 일베)와 같은 세계 어디에나 있는 극우적이고 억압적인 SNS 공간이 기존 보수우파 정치 집단과 언론에 의해 교묘히 전면에서 등장하게 되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SNS를 통한 비정형화 정치의 활성화와 이를 바

탕으로 하는 정형화된 정치의 복원의 가능성은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다시일상'으로 그저 그래 왔던 정치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한 하는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최장집. 2002.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주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Castells M. 1996. The Information Age. Vol.I: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Cambridge, MA: Blackwell.

Diani, M. (1992) 'The concept of social movement' , Sociological Review, vol. 40, no. 1, pp. 1-2

Harp, D., Bachmann, I., and Guo, L. 2012. The Whole Online World Is Watching:

Profiling Social Networking Sites and Activists in China,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I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6, 298-321.

Jung, Y-J · Sung, S-Y. 2012. The Public' s Declining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Meiji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136-48

Laer, J. V. and Aelst, P. V. (2010). Internet and Social movement action repertoires: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3(8), p. 1146-1171.

Tarrow, S. (1998) PoweW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저/자/소/개



채 영 길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 간단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09~ 현재),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8).
- 연구분야: 국제커뮤니케이션, 대안미디어, 다문화 미디어.